Vol. 570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Contents

대사관 관련

03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가 보는 양국 관계의 미래
낙관주의와 인내심이 필요

일한 관계

06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온라인으로 개최

07 일본문화원 리포터
어려울수록 돕는 이웃, 한국과 일본을 향해

08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 후지모토 사오리 인터뷰
양국 문화의 공통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12 사케 소믈리에 쿠마가이 칼럼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

일본 사정

16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아름다운 규슈의 풍경을 만나는 미야자키의 미치노에키

20 트렌드 앤 트렌드
변화하는 일본의 공장 문화, 팩토리 페스티벌

24 일본의 계절을 걷다
사슴과 함께 나라 단풍 산책

일본 문화

28 일본의 박물관 미술관
도쿄 아트 산책,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

32 집에서 손쉽게! 일본의 가정요리
감칠맛 듬뿍, 겨울 한상차림

34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도자기 마을 도코나메

문화 행사

38 제16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그랑프리 수상작

39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40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결과 발표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44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표 지

동화나라(童話の世界)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ANA상
Photo : KIM JAEEUN

통 권 **570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가 보는 양국 관계의 미래

낙관주의와 인내심이 필요

최근의 양국 관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중앙일간지와 가진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양국 관계, 긴 안목으로 보면…

"양국 관계가 나쁘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자면 1965년 국교 정상화로부터 '불과' 50여 년 사이에 여기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낙관주의를 가질 만하다. 반면 양국 간에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 무언가를 진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전후 국교 정상화에만 20년, 그로부터 김대중 ·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1998년)까지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물론 낙관주의는 낙천주의와 달라서,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의 기대가 있었다.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관계 개선의 기운이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스가 총리는 스스로 외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중요한 나라라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한 · 일미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 측이 정권 출범 직후 전화회담을 요청한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외교 과제는 이런 긍정적 기운을 관계 개선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바꿔 나가는 일이다."

올 연말경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스가 총리 방한 조건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일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아니니 일반론만 말할 수 있다. 우선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 국민이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낼 필요도 있다. 그에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며칠 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방한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여러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실타래가 너무 꼬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낙관주의는 문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잘못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위기감, 그런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양국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 개인적 관계 만들어야

또 하나의 현안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언젠가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으로 안다. 다만 폐수 처리의 모든 과정은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승인과 협력하에 이뤄지게 된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락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임한다는 각오다."

코로나 19 문제와 관련해 그간 양국 간 협력이 몇 가지 성과로 나타났다. 제3국에서의 자국민 대피 과정에서의 협력, 일본계 기업인 도레이 구미 공장의 마스크 소재 생산 협력 등이 그런 예다. 좀 더 서로 도울 여지는 없을까.

"방역은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에 제약이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내다본다면 여러 가능성이 생긴다. 가령 스가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내건 한국판 뉴딜 정책과 공통점이 많다."

3월 이래 멈췄던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최근 기업인부터 풀렸다. 코로나 확산 여하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우문이긴 하지만 일반인 왕래는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하나.

"비즈니스 트랙 외의 폭넓은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과 방역을 어떻게 양립시킬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아베 전 정권은 관광입국을 내걸고 민간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관광업에 투여했다. 지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도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염원하고 있다."

반일 혐한 등 민족주의 감성이 기승을 부리는 반면 젊은이들은 음식이나 문화 등 독자적 감성으로 상대국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은 공감을 비교적 순수하게 표현하니까. 사실 서로에 대한 친근감은 다른 세대들도 가졌다고 본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유도 공감이 되기 때문이다. 연애 감정, 가족의 소중함…. 느끼는 것이 비슷하다. 저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시종 흥미진진하게 봤고 최종회에서는 눈물을 흘렸다. 교류를 통해 이런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칠-대처 전기 저술 위기 리더십 연구

그는 현역 외교관으로서 윈스턴 처칠과 마거릿 대처에 대한 저서를 낸 작가이기도 하다. 이 중 대처 전기는 지난해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상을 받았다.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들을 일일이 찾아내 공들인 저술이다.

왜 처칠과 대처인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크게 자원 배분과 국가 위기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라고 본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역사에 남을 궤적을 남겼다. 대처

는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변혁을 통해 정치적 '자원 배분'을 새로이 해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 경제를 부활시켰다. 인간적인 그릇은 처칠이 더 크고 매력적이지만 영국 사회에 미친 업적은 대처가 더 컸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처칠이나 대처의 시대만 해도 리더의 역할이 크고 대중에게 리더십이 받아들여졌다. 요즘은 자국 제일주의가 우선시되면서 포퓰리즘과 독재가 뒤섞인 리더십이 세계를 풍미한다.
"리더는 국가를 이끌지만 국민에게 이끌려가기도 한다. 한 시대는 지도자와 국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리더를 고르는 것은 국민이므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해진다."

그는 "현직 외교관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의 저서를 펼쳐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다.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리더는 국민에 영합하게 된다. 세상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당들은 모두 중도로 수렴돼 차별성이 없어졌다. 불만이 쌓인 국민에게 리더들은 극단적인 주장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정치의 권좌를 차지하는 수법을 쓰게 된다…."

한일축제한마당… "계속의 힘"

그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20번째 주한 일본대사다. 2004~2006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과 정무공사로 근무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는 가족이 함께 서울에서 지냈지만 이번에는 혼자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했고 부인은 지난해 태어난 첫 손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내정 단계부터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 1925~1970)의 사위로 소개되면서 경계의 대상처럼 인식돼 버렸다. '금각사'의 작가로 한때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미시마는 점차 극우사상에 경도돼 자위대의 궐기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남겨진 딸은 11세에 불과했다.
"장인은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제 직업이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11월 10일에는 제16회 한일축제한마당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5월부터 축제 준비를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도미타 대사는 그때마다 "지속(繼續)은 힘(力)이다"라는 일본의 격언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축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속은 힘…'은 당장 화려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해오던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정신을 말한다.

"축제한마당은 제가 서울서 근무하던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15년간 이어온 행사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온라인이라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참가 못 하던 분들이 찾아줄지도 모른다. 되도록 많은 분이 관심 갖고 즐겨 주시길 기대한다."

소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다 보면 무언가를 이룰 힘을 얻는다. 향후 양국 관계 여러 장면에서 이런 정신은 꾸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기사 및 사진 출처

2020년 11월 3일 자 동아일보, 서영아 [논설위원 파워 인터뷰]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 온라인으로 개최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에 시작해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이 11월 10일 (화) 12:00부터 15:20까지 '하나되어 나아가자 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를 테마로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간 문화 교류는 물론 시민 교류,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부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만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코엑스에 설치한 무대에서 진행된 한국 측 출연 단체의 라이브 공연과 일본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일본 측 출연 단체의 공연 등을 다채로운 영상에 담아 선보였다. 또 양국의 전통의상 부스와 체험 코너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해 온라인 관객에게 즐거움과 문화적 다름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 부산문화재단 등 약 17개 단체가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부스 형태로 참가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www.omatsuri.kr

유튜브 공식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L2loDgvTFEMfwrJy6LuFTQ?view_as=subscriber

어려울수록 돕는 이웃, 한국과 일본을 향해

강준수 일본문화원 리포터(6기)

어느새 16회를 맞은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개최되어 왔다. 2009년부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에서도 개최되어 양국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16회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은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행사 관계자만이 배석한 채 진행되었으며 명부 작성부터 체온 측정, 소독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며 참가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외교 및 민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하나되어 나아가자(心あわせて乗り越えよう)' 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심리적이나 물리적으로 멀어진 양국의 상황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한 테마가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매년 한일축제한마당에 참가해왔다는 동료 리포터로부터 예년보다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민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만큼, 부스는 체험 부스 위주로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되었다. 기모노, 유카타 체험과 한복 체험 그리고 전통 놀이 체험 등이 준비되어 우리 리포터 팀도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채 한국의 널뛰기와 투호, 일본의 겐다마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취재를 이어갔다.

사정상 한정되었던 부스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시선은 중앙 무대로 집중되었다. 중앙 무대의 행사는 한일축제한마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온라인 축제라는 생소할 수 있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어 행사 참가자로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

중앙 무대를 통해 한국 측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한울림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락음국악단, 상명대학교 SUMUDA 춤맥의 한국 전통 공연이 있었고, 일본 측에서는 기라쿠자, 마사후지, 와다이코 아카쓰키에 의한 일본 전통 공연이 이어졌다. 이 공연을 지켜보면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양국 간의 문화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피날레 무대로 한국과 일본의 행사 참여자가 함께하는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이 있었다. 일본 전통 의상인 핫피를 입고 나루코라는 작은 악기를 들고 추는 군무가 일본의 마쓰리 경험이 없는 나에겐 색다르게 느껴졌다.

한일축제한마당 2021 in Seoul을 약속하는 요사코이 아리랑 공연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예년처럼 행사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양국 문화의 공통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일본 방송인이자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후지모토 사오리(藤本紗織) 씨. 11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사회자로서도 맹활약했다. BTS의 노래를 수어로 전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수어통역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등 지금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인 후지모토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의 만남과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 온 후지모토 사오리입니다.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대사 일본 대표로 위촉되어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일본에 알려왔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한국에 오는 이민자를 돕는 복지기관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국제관광전 글로벌홍보대사로서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알리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온라인 홍보대사로서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글로벌홍보대사로서 한국 청년들과 함께 미래 도시설계와 세계시민 교육

簡単に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こんにちは!手話アーティストとして韓国で活動している藤本紗織です。CSR活動としては、2018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大会及び冬季パラリンピック大会の広報大使に日本代表として委嘱され、平昌オリンピックとパラリンピックそして韓国文化を日本に発信し、法務部ソウル出入国外国人庁の広報大使として韓国に来る移民者達を助ける福祉機関を紹介する役割を行ってきました。また、韓国観光協会中央会と韓国国際観光展グローバル広報大使として韓国の美しい観光地を紹介し、行政安全部オンライン広報大使として安全な国、大韓民国を広報しています。そして、UN HABITATE 韓国委員会グローバル広報大使として韓国の青年と一緒に未来都市設計と世界市民教育について広報する役割を行ってきました。そして、放送活動及び手話アーティストとしては、2017年10月9日の「ハングルの日」に発足した多国籍の外国人プロジェクト公演チーム「ハングル」での活動です。韓国語で「韓国文化を広める、グローバルアーティスト」の略ですが、このハングルチームは歌の1番は各国の母国語で唄い、2番では韓国語、そしてろう者のため音楽を視覚的に表現し、全世界のろう者と聴者の方達に心を癒せる手話アーティストとしての役割を行って来ました。

韓国に関する多様な活動を行っていますが、韓国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韓国

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수어 아티스트로서는 2017년 10월 9일 한글날 출범한 다국적 외국인 프로젝트 공연팀인 '한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줄임말인데요. 한글 팀에서의 활동은 노래 1절은 자국어로 부르고 2절은 한국어, 그리고 농인을 위해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 세계 농인과 청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수어 아티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인상 깊었는지.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해외연수로 처음 한국에 와서 자매학교 친구와 교류하고 관광을 했을 때입니다. 한국 친구들이 모두 일본어로 열심히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와 K-POP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인상 깊은 한국 문화는 실제 한국에 살다 보니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K 방역이 인정받는 것처럼 위기에 직면하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느끼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국 문화의 장점과 공통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문화의 장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전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정(情)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문화의 장점은 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온 '와(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부분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어'라는 언어를 통해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のどのような文化が印象深かったのですか。

韓国に関心を持ったきっかけは、高校の時に海外研修で初めて韓国を訪れ、姉妹学校との交流、観光などをした時です。韓国の友人は皆、日本語で一生懸命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てくれて韓国の文化やK-POPなどを教えてくれました。

その当時も日韓関係が良くなく、心配する部分もあったのですが、韓国の人達は心から歓迎してくれて温かく接してくれました。印象深い韓国文化としては、今こうして実際、韓国に住んでみると、「漢江の奇跡」と呼ばれる言葉があるだけに、韓国の人達は団結力、そして現在のコロナ状況でも「K防疫」が認められているように、危機に直面すると、力を合わせて乗り越えようという共同体の意識が本当に強い国だと感じています。

韓国と日本の文化の違いを感じた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が、両国の文化の長所と共通した部分は何だと思いますか。

韓国文化の長点としては、人間関係では率直に自分の気持ちや意見を伝えながらも相手を配慮し思いやる「情の文化」です。そして日本文化の長点としては、集団でいる際には互いに迷惑にならないよう、謙遜し雰囲気を乱さ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精神からきている「和の文化」だと思います。共通している点は、根本的に相手を思いやり、配慮する心です。互いの文化を知り、理解す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

特に「手話」という言葉を通じて大活躍されていますが、BTSの歌などを手話で伝える姿がとてもとても印象的でした。このように手話で活動するようになっ

데, BTS 노래 등을 수어로 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어로 활동하게 된 이유와 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패럴림픽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온몸으로 부딪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현장에서 농인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소리인 '한국 수어'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서울수어교육원에서 수어를 배우다 보니 농인 분들, 수어통역사님, 선생님을 만나면서 농문화, 농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필기시험에 외국인 최초로 합격했고 지금은 실기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어도 언어와 똑같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 수어와 일본 수어는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60%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으로는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어통역의 기초' 등의 이론과 9급 공무원 수준의 '국어' 총 4과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아 앞으로도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가난하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인들에게 음악을 보이게 하여 청인들과 함께 편견 없이 즐기고,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수어를 기반으로 창작한 문화 콘텐츠가 많이 없었습니다.

た理由とそれを通じてどのような話を伝えたいのか聞かせてください。

2018年の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大会と冬季パラリンピック大会の広報大使の活動をしながら、特にパラリンピック選手が競技場で全身でぶつかり合い、立ち上がる姿を見て「私も何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現場でろう者の方々のために使用されているもう一つの音「韓国手話」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ソウル手話教育院で手話を勉強しながら、ろう者の方々、手話通訳士、先生に出会い、ろう文化、ろう社会について知り、もっと深い勉強をしなければと思い、国家公認手話通訳資格試験に挑戦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年、筆記試験に外国人初の合格となり、今は実技試験に備え一生懸命勉強しています。

手話も言語と同じように国ごとに異なりますが、韓国手語(話)と日本手話は植民地時代の影響で約60%が似ているそうです。筆記試験には「障がい者福祉」、「聴覚障がい者の理解」、「手話通訳の基礎」などの理論や9級公務員レベルの「国語」の合計4科目があります。障がい者福祉に関して日本も韓国も似ている部分が多いことが分かり、今後も互いに良い影響を与え、受け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全世界の人々が辛かったり、大変だったり、貧しくとも音楽を通じて心の癒しを見つけます。ところが韓国と日本だけでなく、全世界のろう者たちに、音楽を視覚的にし、聴者たちと共に偏見なく楽しめ、心の癒しができるように手話を基盤に創作した文化コンテンツが多くはありませんでした。

全世界で愛されているBTSの音楽は、哲学と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ており、全世界の人々の心が癒され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私も、ろう者と聴者のためにBTSの『ON』、そして最近では『Dynamite』を韓国手語(話)をもとに創作して、YouTubeのコンテンツを公開したのですが、反応がとても良かったです。私が再解釈して音楽を日本語の字幕入りで作成したのですが、日本のろう者の方々も喜んで下さり、感謝のメッセージも沢山送って下さりました。中には韓国手話を勉強したいと言って下さる方も多かったです。全世界の5億人のろう者が、互いに異なる手話に対して関心を持ち、全世界の聴者また、それぞれの国のろう文化、ろう社会に対して関心を持つことが出来る事を願っています。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BTS의 음악에는 철학과 메시지가 담겨있어, 전 세계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농인과 청인을 위해 BTS의 'ON', 그리고 최근에는 'Dynamite'를 한국 수어를 바탕으로 창작한 유튜브 콘텐츠를 공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재해석한 음악을 일본어 자막을 넣어 알려준 데 대해 일본의 농인 분들도 기뻐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어 수어를 배우고 싶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5억 명의 농인이 서로가 다른 수어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청인 또한 각 나라의 농문화, 농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일축한마당 2020 in Seoul'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사회자로 활약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행사를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6년째가 되는 한일교류 최대의 민간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20 in Seoul'의 홍보대사로서 사회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축제에 참여해 새삼 느꼈던 점은 문화적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은 정말 가깝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을 통해 양국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정된 정보와 매체 등에서 보이는 양국 관계의 모습은 정말 일부이고 실제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또 서로의 문화를 사랑하면서 열광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하게 된 축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으신지. 한국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회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싶습니다. 아티스트로서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시각적인 언어, '또 하나의 소리'인 수어를 기반으로 창작해 전 세계 농인, 청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농인과 청인의 가교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역활을 하고 싶습니다.

今年は「日韓交流おまつり2020 in Seoul」の広報大使として委嘱され、司会者として活躍されましたがご感想はいかがでしょか。そしてイベントに接して感じた点があれば何でしょうか。

16年目を迎えた日韓交流最大規模の民間行事である「日韓交流おまつり2020 in Seoul」の広報大使として司会をさせて頂き、本当に光栄で、感謝する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おまつりに参加して、再度感じたことは、文化的には日本、韓国の両国の国民は本当に近く、一つにな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ことです。日韓交流おまつりを通じて日韓の伝統を守りながらも、新しい文化コンテンツも一緒に作っていく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した。限られた情報、媒体などで見られる日韓関係の姿は、本当に一部であり、実際の韓国と日本の間の友好増進のために、多くの人々が熱心に取り組み、また、お互いの文化を愛して熱狂している姿に感動したおまつりでした。

今後、どのようなことに挑戦したいのでしょうか。 韓国での目標があれば何でしょうか。

社会的には、日本と韓国で私が直接経験したことを通し、多くの人達が理解を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を作り、偏見や先入観をなくしたいです。アーティストとしては、全世界の人々が好きな音楽を視覚的な言語である「もう一つの音」の手話を基盤に創作し、全世界のろう者、聴者が共に共感できる文化コンテンツを作り、ろう者と聴者の架け橋となる役割を果たしていきたいです。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일본 술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

지난번 칼럼에서는 사케에 대해 썼는데, 이번에는 '본격 소주(일본어로 쇼추)/아와모리'에 대한 칼럼입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소주가 있지만, 일본에는 5000종이 넘는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쌀로 빚은 오키나와현의 전통 소주)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고 나서 자신과 잘 맞는 본격 소주(또는 아와모리)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소주란

사케와 소주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케는 막걸리와 맥주, 와인과 같은 '양조주'입니다. 양조주란 효모의 힘을 빌려 곡식과 과일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조주를 증류(알코올 성분을 모으는 작업)한 것이 '증류주'입니다.
쉽게 말해 포도를 알코올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고 그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됩니다. 쌀을 발효시켜 만든 막걸리와 사케를 증류하면 '쌀 소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류주는 양조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증류란

소주 외에도 위스키와 브랜디, 보드카, 진 등 세상에는 다양한 '증류주'가 있습니다. 물은 100℃에서 끓지만, 알코올은 78℃에서 끓습니다. 이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해 도수 높은 알코올(증류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코올 도수

는 그리 높지 않지만 원재료의 풍미 살리기'가 목적인 전통적인 증류법, 즉 '단식 증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재료의 풍미는 잘 살리지 못하지만, 순도 높은 알코올의 효율적인 추출'을 목적으로 한 증류법, 즉 '연속식 증류'입니다. 일본의 본격 소주는 모두 단식 증류로 만들어지며 고구마, 보리, 쌀 등 원재료의 풍미가 강한 소주입니다. 낯익은 녹색 병의 한국 소주는 '연속식 증류'로 만들어져 원재료의 풍미는 많이 못 느끼지만, 깔끔하고 개운하며 마시기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에도 연속식 증류로 만드는 소주는 많지만, 본격 소주라고 내세우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주로 소주에 탄산수(추하이)나 주스(사와), 우롱차(오차와리)로 희석해서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재료의 풍미를 살린 본격 소주

여러분은 낯익은 녹색 병의 한국 소주 원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 원재료는 쌀과 보리입니다. 병의 라벨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니 기회가 닿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쌀과 보리로 만든 한국 소주를 마시면서 '쌀의 감칠맛이 느껴진다. 보리의 풍미가 살아 있다' 등의 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원재료의 풍미가 많이 남지 않는 증류 방식 즉, 연속식 증류로 만든 소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본격 소주는 원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증류 방식 즉, 단식 증류로 만들어 고구마와 보리, 쌀 등의 원재료가 가진 다양한 곡물의 풍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소주 주세요'라고 주문해도 본격 소주를 내 주지 않습니다. "고구마 소주 주세요" "보리 소주는 어떤 게 있나요"처럼 원재료를 지정해서 주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본격 소주의 원재료로 인정받는 것은 곡류(쌀,

보리 등), 고구마류, 흑당 등 50여 가지입니다. 그중 음식점 등에서 비교적 많이 마시는 3가지 소주는 '고구마 소주'와 '보리 소주' 그리고 '쌀 소주'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한국처럼 소주를 그대로 마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얼음을 넣은 '온더락'이나 냉수를 섞은 '미즈와리', 온수를 섞은 '오유와리', 탄산을 섞은 '탄산와리' 등, 저마다 선호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본격 소주가 가진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한 숙성 방법

본격 소주는 원재료의 개성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위스키처럼 오크통에서 몇 년씩 숙성하거나 항아리에서 천천히 숙성하는 등 숙성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현(沖縄県)의 전통주인 '아와모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증류주로 알려져 있는데, 100년이 넘은 숙성주(고주(古酒))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빚어진 술이라니 한 번쯤은 마셔보고 싶네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본격 소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종류의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가 수입되어, 비교적 손쉽게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입회사를 설립할 당시(2009년)에는 몇 종류밖에 수입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50여 종의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술집이나 일본요리점에서 일본의 본격 소주와 아와모리가 눈에 띄면 꼭 한번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소주든 보리 소주든 소주 저마다의 개성은 물론, 온더락이나 미즈와리 등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요리와의 궁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님과의 대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름다운 규슈의 풍경을 만나는
미야자키의 미치노에키

미치노에키 난고

미야자키는 규슈 남쪽에 있는 휴양지로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져 있으며, 일 년 내내 기후가 온난하고 날씨가 좋아 과거에는 일본의 신혼 여행지로 인기를 모으던 곳이다.

일본 굴지의 골프 코스와 서핑 명소가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미야자기 북부에는 일본 건국 신화의 신사가 있다. 일본의 최고급 브랜드 소고기 미야자키 규(宮崎牛)를 비롯해 닭 숯불구이인 지도리 야키(地鶏焼き), 열대 과일인 망고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아름다운 해안가 도로가 잘 놓여 있어 렌터카를 이용해 둘러보기에 좋고, 화산이 만든 협곡인 다카치호(高千穂), 탁 트인 전망의 에비노 고원(えびの高原) 등 다양한 풍경과 만날 수

미치노에키 난고 전망

미치노에키 난고 전망

미야자키 망고

망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이센동(회덮밥)

있다. 명소 인근에는 자동차 휴게소인 미치노에키가 있어 휴식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일본의 인기 1위 휴게소 미치노에키 난고

미치노에키 난고(道の駅 なんごう)는 미야자키 남부의 니치난 해안 국립공원(日南海岸国定公園) 중앙에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휴게소다. 휴게소까지의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칠레 이스터섬에서 볼 수 있는 모아이 석상이 있는 산멧세 니치난(サンメッセ日南), 순산을 기원하는 신사이며, 해안가 절벽 위에 자리한 우도 진구(鵜戸神宮) 신사 등 주변의 볼거리도 다양하다. 미치노에키 난고에서는 아름다운 미야자키 남부의 해안선과 바다는 물론 미야자키 해산물로 만든 회덮밥(海鮮丼, 가이센동), 미야자키 망고와 망고로 만든 소프트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2017년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조사한 일본 미치노에키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휴게소다.

신화의 마을 속 휴게소 미치노에키 다카치호

미치노에키 다카치호(道の駅 高千穂)는 미야자키 북부 다카치호 협곡에 있다. 일본 건국 신화의 배경인 마을이기도 한 다카치호에는 다카치호 신사(高千穂神社), 아마노이와토 신사(天岩戸神社)가 있으며, 이들 신사에서는 일본 신화의 전설을 재현한 춤 공연 요카구라(夜神楽)와 신화 속 배경지를 엿볼 수 있다.

다카치호 협곡은 10만 년 전에 인근 화산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며 이곳을 흐르는 강과 마나이노타키(真名井の滝) 폭포는 규슈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다. 다카치호는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찾는 것이 좋다.

미치노에키 다카치호

다카치호 신사 요카구라

다카치호 협곡 마나이노타키 폭포

아마노이와토 신사

과 호수, 초여름에는 희귀한 고원 식물, 가을에는 선명한 단풍을 볼 수 있으며 기리시마 산맥의 멋진 풍경과 만날 수 있다. 미치노 에키 에비노에는 가고시마와도 가까워서 미야자키와 가고시마의 특산품을 동시에 찾을 수 있으며, 고원에서 자란 미야자키 소로 만든 미야자키 규 고로케(宮崎牛コロッケ) 등이 인기다.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휴게소 미치노에키 에비노

미치노에키 에비노(道の駅 えびの)는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인 기리시마 긴코완 국립공원(霧島錦江湾国立公園) 에비노 고원(えびの高原) 입구에 있는 휴게소다. 에비노 고원은 해발 1,200m의 고원으로 12km에 이르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등산, 하이킹의 명소로 유명하다. 가라쿠니다케(韓国岳), 고시키다케(五色岳) 등 크고 작은 화산

미야자키 해안의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미치노에키 피닉스

미치노에키 피닉스(道の駅 フェニックス)는 미야자키 남부 니치난 해안 국립공원(日南海岸国定公園) 북부, 호리키리토우게(堀切峠) 바로 아래 위치한 해변가 휴게소다. 니치난 해안 국립공원의 해변 드라이브 코스의 시작 지점에 있으며, 다리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오시마(青島), 서핑의 명소인 아오시마 해변(青島ビーチ) 등 주변의 볼거리

미치노에키 에비노

에비노고원

에비노고원 전망

미치노에키 피닉스

미야자키 규 고로케

가 다양하다. 미치노에키 피닉스 주변의 바다 해변에는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빨래판 같은 독특한 형상의 도깨비 빨래판(鬼の洗濯岩)이라는 기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오시마, 호리키리토우게 전망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휴게소에서는 미야자키 특산물인 금귤과 금귤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미야자키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미야자키 금귤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 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하고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 부흥 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로 시작해서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fresh), 도로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mation),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 활성화 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80 곳이 등록되어 있다. (2020년 7월 기준)

니치난 해안 국립공원 드라이브 코스

도깨비 빨래판

모노즈쿠리 학교

변화하는 일본의 공장 문화
팩토리 페스티벌

쓰바메 산조 공장의 제전, 팩토리 페스티벌(燕三条 工場の祭典, Tsubame-Sanjo Factory Festival)

매년 10월이 되면 니가타현의 작은 도시, 쓰바메 산조(燕三条)가 북적이기 시작한다. 쌀과 술로 유명한 니가타, 온천과 스키장의 도시 유자와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쓰바메 산조는 조리도구, 공구 등 모노즈쿠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 방식의 다양한 공예품을 만드는 마을이다.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난 스노피크(Snow Peak)를

모노즈쿠리 학교

모노즈쿠리 학교

공장의 공산품들

체험 교실

비롯해 오랜 세월 금속 가공업으로 이름을 떨친 이곳은 크고 작은 1,500여 개의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유서 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쉽게 발길을 할 수 없었던 이곳에 외국인까지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201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팩토리 페스티벌 덕분이다.

열려라 공장! 100개의 공장 문이 열리는 KOUBA(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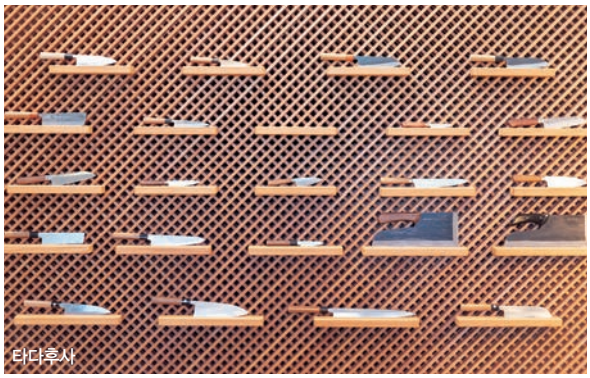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개의 공장이 일제히 공장 문을 여는 축제, 그리하여 붙여진 슬로건은 '열려라, 공장'이다. 평소에는 관람이 어려운 작은 공장도 페스티벌 기간에는 일제히 문을 열고 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견학, 체험을 할 수 있으니 행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다. 행사는 올해로 7회에 접어들며 더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이벤트를 열고 있다. 칼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신의 칼을 가져와 직접 갈아보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젓가락을 만드는 공방에서는 나무를 함께 깎아 팔각 젓가락을 만드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으레 예스럽다고 생각하기 쉬운 전통문화를 기획의 힘으로 관광과 함께 흥미로운 문화 체험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것이다.

형광 핑크색 스트라이프를 찾아라, 디자인의 힘

팩토리 페스티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스트라이프 패턴이다. 야마다 하루나(Yamada Haruna)가 이끄는 디자이너 그룹 SPREAD는 페스티벌 전체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형광 핑크색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했다. 의류, 제작물뿐만 아니라 공장 외부에도 핑크색 박스 테이프를 사선으로 붙이기만 하면 페스티벌을 알릴 수 있어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도 쉽게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GOOD DESIGN AWARDS에서 수상하는 등 로컬에 적용된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했다.

팩토리 페스티벌 ©spread-web.jp

팩토리 페스티벌 ©spread-web.jp


타다후사

타다후사

공장 견학

공장 견학

장인에게 직접 듣고 배우는 즐거움

페스티벌 기간 동안 각 공방에서 열리는 체험 교실은 모든 방문객들이 사전,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체험 교실은 식칼공방 타다후사 (タダフサ)에서 열리는 칼 연마&만들기 워크숍. 1948년부터 쓰바메산조 지방에 문을 열고 식칼을 만들기 시작한 타다후사는 3대에 이어 수작업으로 칼을 만들고 있는 인기 공방이다. 빵을 부스러기 없이 자를 수 있는 이 곳의 빵칼은 최대 3년을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는 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인기를 반증하듯 워크숍은 전 회 매진을 기록했다. 칼 연마워크숍은 본인이 실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칼을 가져와 장인의 도움을 받아 숫돌에 칼을 직접 갈아보며 칼을 제대로 관리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참가자들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점점 능숙하게 칼을 갈게 되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들이 흥미롭다. 이처럼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쓰바메산조의 공예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욱 아끼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것이 팩토리페스티벌이 페스티벌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공방의 자부심을 높이다, 워크웨어 런어웨이

팩토리 페스티벌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1500개가 넘는 공방 사

공장 견학

워크웨이 런웨이

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에 속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행사는 최고급 젓가락을 만드는 지역 공방 마루나오(MARUNAO)의 작은 숲에서 각 공방의 작업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펼치는 패션쇼인 워크웨어 런웨이다. 작업자들은 마치 모델이 된 듯 공방의 작업복을 입고 조명이 설치된 숲을 런웨이 삼아 박수를 받으며 자신 있는 워킹으로 걸어 나온다. 북유럽에서 단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와있는 외국인부터 이제는 은퇴한 80대 노장까지 당당하게 작업복을 입고 걷는 모습은 보는 이들은 물론, 지역 공방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워크웨이 런웨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지역, 잊혀가고 있는 공예의 가치를 전하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며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지역 산업은 고령화되어, 더는 기술을 이어갈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공방들의 물건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쓰바메 산조의 팩토리 페스티벌은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잊혀 가는 물건의 가치를 다시금 사람들에게 알리는 멋진 역할을 해내고 있다. 햅쌀로 지은 밥을 맛보고 단풍을 따라 걷기 좋은 가을이 되면, 문이 열리는 공장을 찾아 쓰바메 산조로 떠나보자.

홈페이지 kouba-fes.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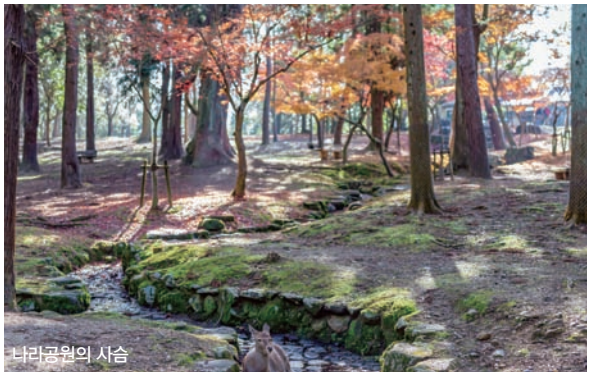
나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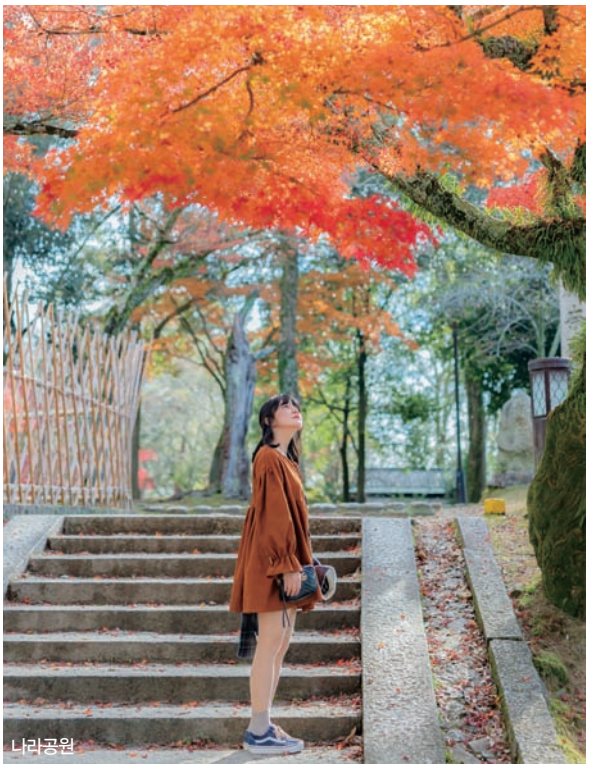
사슴과 함께
나라 단풍 산책

신성한 산과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 여러 명소, 초기 일본의 유물을 보유한 나라

고대 일본의 정치 종교적 중심부였던 나라(奈良)는 오사카(大阪)와 교토(京都)에서 교통편이 좋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손꼽히는 신사와 사찰이 많다. 이러한 종교적인 건물의 경내에는 철마다 꽃을 피우는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 주변 환경을 한층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준다. 나라 공원은 사슴이 자유롭게 노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인

건널목을 건너는 사슴


나라공원의 사슴


나라공원

사슴 주의 안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슴

근의 도다이지 사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불상이 있다.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든 공원의 산책로를 나라의 사슴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다.

나라공원

나라공원(奈良公園)은 장난스럽고 친근한 사슴이 가득한 와카쿠사산(若草山) 기슭에 자리한 넓은 공원이다. 훼손되지 않은 숲과 거북이와 잉어로 가득한 호수를 배경으로 여러 신사가 위치한 곳이다. 나라의 사원과 신사는 교토의 재건된 건물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개성도 그만큼 강하다.

긴테쓰 나라역에서 옛 풍경이 남아있는 상점가인 나라마치(奈良町)를 지나면 시작되며, 숲과 호수로 이루어진 나라 공원에는 수많은 사슴과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공원을 지나는 길에는 고후쿠지(興福寺), 나라국립박물관(奈良国立博物館), 도다이지(東大寺) 등의 경승

사슴 센베 과자

고후쿠지

세계유산 가스가타이샤

석등의 사슴 조각

석등 주변의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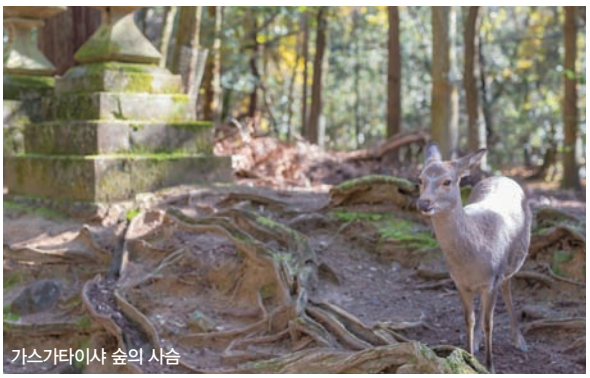
가스가타이샤 숲의 사슴

지와 만날 수 있으며 공원 끝에는 오랜 역사가 있는 신사인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가 있다.

가스가타이샤

수천 개의 석등이 세워져 있는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는 768년에 건축된 신사로 당시의 권력자인 후지와라 가문의 신을 모신 것이 시초로 199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신사 입구부터 경내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참배로가 있으며, 참배로 양옆에 세워진 약 3천 개의 등불과 석등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사슴은 동화 속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다양한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으며 길 중간중간에 가스가니나이쟈야(春日荷茶屋)와 같은 찻집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찻집에서는 나라의 특산품인 야마토(大和) 녹차, 채소와 과일을 절인 나라즈케(奈良漬), 달마다 바뀌는 나라 전통 죽 요리인 만요카유(万葉粥) 등을 맛볼 수 있다. 가스가타이샤의 숲

가스가타이샤 숲의 사슴


가스가타이샤 숲의 사슴

가스가니나이자야

가스가니나이자야에서 바라본 창가 풍경

가스가니나이자야의 만요카유

가스가니나이자야 앞의 단풍길

가스가타이샤 참배길

인 가스가노모리(春日の森)의 미즈야 신사(水谷神社) 인근은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사람도 사슴도 모여 여유롭게 단풍을 구경하고 있다.

가스가타이샤를 지나 나라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만날 수 있는 도다이지(東大寺),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을 안치한 사원이자 화엄종이라 불리는 불교 종파 전체의 총본산이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 중 하나로 절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을 풍경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청동불상은 높이 15m, 무게 500톤, 얼굴 길이만 5m인 대형 불상으로 위압감이 있으며 이를 수호하는 수호 상의 크기도 8m에 이른다. 본당에서부터 도다이지 남대문까지의 길은 넓고 수많은 관광객과 사슴을 만날 수 있으며 길가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가을이 물들어 있다.

도다이지 가는 길의 단풍

도다이지의 사슴

롯폰기 힐즈

도쿄 아트 산책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

수많은 문화 예술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롯폰기가 새롭게 문화예술의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7년 1월 국립신미술관, 3월 산토리미술관이 개관하면서다. 롯폰기힐즈의 모리미술관과 이곳을 꼭짓점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을 '아트 트라이앵글' 이라 부른다.

롯폰기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개관한 크고 작은 미술관과 함께 '롯폰기 아트 트라이앵글(六本木アート・トライアングル)'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연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롯폰기의 갤러리를 잇는 산책로가 생겨났다.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우리와 달리, 일찍 문을 닫는 일본에서 밤을 새워가며 계속되는 '롯폰기 아트 나이트(六本木アートナイト)'도 진행된다. 아트 트라이앵글의 꼭짓점에 해당하는 세 미술관에서는 아트 트라이앵글 지역의 관련 지도 및 문화행사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롯폰기 아트 나이트

롯폰기 아트 나이트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롯폰기에서 열리는 예술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롯폰기 힐즈의 모리 미술관, 도쿄미드타운, 산토리 미술관, 21_21 DESIGN SIGHT, 국립신미술관을 중심으로 롯폰기 상점가를 포함해서 열린다. 이 기간이 되면 롯폰기의 크고 작은 다양한 갤러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되며, 약 60개의 카페, 레스토랑, 이자카야 등의 상점이 참가하여 밤새워 영업을 지속하고(일부 가게 제외), 가게마다 '롯폰기 아트 나이트'를 위한 특별 메뉴와 기획 할인

롯폰기 아트 나이트

롯폰기 아트 나이트

행사를 여는 등 롯폰기 일대가 축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또한 벚꽃이 만개한 거리 곳곳에서는 각종 전시, 공연, 연주, 라이브, 행위 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롯폰기 일대가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을 발 빠르게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볼거리도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천천히 산책하듯이 둘러본다면 2시간 정도 소요되며, 기간 중에는 롯폰기의 각 지역을 연결하는 무료 버스도 운행된다.

국립신미술관

2007년 1월 21일, 일본의 다섯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문을 연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은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가 설계한 건물 내외부의 독특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롯폰기 도심에서 '숲속의 미술관'이라는 콘셉트로 건설된 이 미술관은 파도치듯 흐르는 유리 건물이 인상적이며,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두 개의 원뿔 기둥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그중 높은 기둥은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브래스리 폴 보퀴즈 르 뮈제(Brasseire Paul Bocuse Le Musée)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보다 낮은 기둥은 간단한 음료와 케이크를 맛볼 수 있는 카페 살롱 드 테론드(Salon de Thé Rond)가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가운데, 1층~3층 공간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전시실은 전시 성격에 따라 색다른 공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넓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층의 가장 높은 천장을 가진 2E 전시실은 대규모 작품 전시도 가능해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일본 국내외의 유명 작가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이 연 4~5회 진행되고 있으며, 미술관이 생긴 이래 매년 3~5월경에 개최되는 현대 작가 그룹전인 아티스트 파일(Artist File)이 유명하다.

국립신미술관

국립신미술관

국립신미술관

또 지하 1층에 있는 뮤지엄 숍 수브니르 프롬 도쿄 갤러리(Souvenir From Tokyo Gallery)도 눈여겨볼 만하다. 다른 미술관의 뮤지엄 숍과는 달리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이외에 이 뮤지엄 숍이 별도로 기획,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갤러리를 통해 일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기분 좋은 미술관 곳곳에는 멋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휴게 공간이 있어 굳이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산책하는 마음으로 잠시 들려, 쉬었다 가기에도 좋은 곳이다.

※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 1934–2007)

2008년 봉준호 감독이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옴니버스 영화 '도쿄'를 본 사람이라면, 세 가지 이야기 중 미셸 공드리(Michel Gondry) 감독의 작품인 '아키라와 히로코' 편에서 도쿄를 상징하는 건물로 등장했던 나카긴 캡슐타워 빌딩(中銀カプセルタワービル)을 기억할 것이다. 빌딩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은 도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상징으로 관객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이 빌딩을 설계한 건축가가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 구로카와 기쇼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이 많으며 참신한 발상과 기발한 디자인으로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 중에는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 신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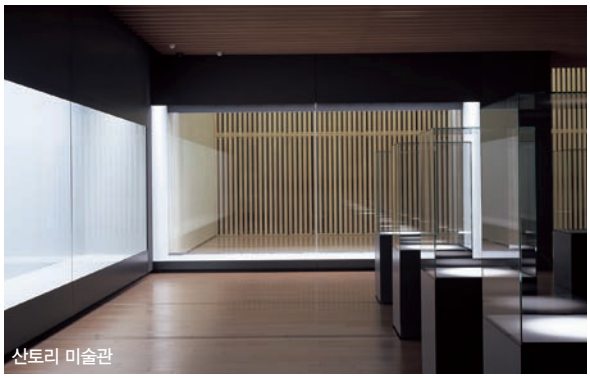
※ 아티스트 파일(Artist File)

국립신미술관이 현재 일본 국내외의 작가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을 만한 활동을 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연감 형태의 전람회로 특별한 테마는 없으며, 표현 형식이나 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회화, 영상, 입체 조형물 등 다양한 표현 형태의 주제가 전시실마다 가득 펼쳐지며,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함으로 그 시대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파일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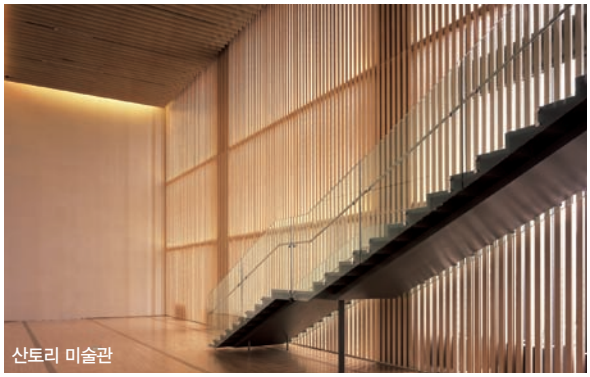
국립신미술관

국립신미술관 아트 숍

모리 미술관


산토리 미술관

롯폰기 힐즈 전망대


산토리 미술관

모리 미술관

모리 미술관(森美術館)은 도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롯폰기 힐즈 모리 타워의 53층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4개의 주요 전시실과 52층의 전망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투명한 유리 상자 느낌의 작은 전시실 2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과 베를린의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등 미술관 설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건축가 리차드 글럭만(Ricahard Gluckman)의 솜씨라고 한다.

세계 유수의 작가를 발 빠르게 소개하는 기획전으로도 유명한 모리 미술관은 영문명 'Mori Art Museum'의 앞 글자를 딴 MA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회부터 번호를 매겨가며 진행되고 있는 MAM 프로젝트에서는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를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산토리 미술관

산토리 미술관(サントリー美術館)은 1961년 도쿄 마루노우치(丸ノ内)에서 개관한 오랜 역사가 있는 미술관으로, 2007년 롯폰기의 도쿄 미드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테마로 설계된 미술관은 일본의 유명 건축가 구마 겐고(隈研吾)의 작품으로, 외관은 백자(白磁)의 세로 격자로 덮여 투명함을 느낄 수 있으며 내부는 나무와 창호지를 이용해 소재 특유의 온기와 부드러움이 표현되어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다.

전시는 계절에 따라 연 4회 정도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생활 속의 미(美)'를 주제로 수집한 회화, 도자기, 칠기, 유리 등 생활과 밀착한 작품을 중심으로 약 3천 점의 소장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 창 무늬인 '무쌍 격자(無双格子)'를 콘셉트로 하는 산토리 미술관의 외관 및 내부를 통해 건축가 구마 겐고의 충실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적인 분위기를 모던하게 재해석해서 표현한 산토리 미술관은 전시 이외에 미술관 자체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감칠맛 듬뿍 겨울 한상차림

한국의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게는 힘든 계절이지만, 한국에는 온돌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 계절에 맛있는 식재료는 방어와 굴입니다. 일본요리에서 대표적인 방어 요리하면 '부리 다이콘(방어 무조림)'이라는 조림입니다. 방어는 일본에서 길이와 크기에 따라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생선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기생충이 있으므로 날 것으로 드실 경우에는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조리 시 사용하는 간장에 따라 색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최근에는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거나 해서 완성된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드는 요령은 역시 비늘과 피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굴은 날로 먹거나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가정요리 전문점, 이자카야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가키프라이(굴 튀김)입니다. 굴을 손질할 때는 간 무나 소금을 사용합니다. 굴은 맛도 있지만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고, 튀긴 후에는 레몬을 곁들였습니다. 굴과 레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굴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먹을 때는 괜찮지만 날로 먹을 경우에는 일단 물로 세척하는게 좋습니다. 구입 후 4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굴을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배추와 연근을 사용한 절임 요리입니다. 평소에는 데친 야채를 차가운 다시에 절이는데, 이번에는 다시와 함께 익혀서 따뜻한 상태로 먹습니다. 식전 요리로 드시면 식욕을 돋웁니다. '부리 다이콘'은 조리에 시간이 걸리고, '가키프라이'는 기름에 튀겨야 해서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이 계절에 감칠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한상차림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집필 마츠나가 분고(松永文吾)
협력 나카무라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부리 다이콘 (방어 무 조림)

【재료】
방어 100g / **무** 150g / **줄기콩** 1개 / **생강 껍질** 약간
유자 껍질 약간 / **다시** 400cc / **청주** 30cc / **고이쿠치 간장** 20cc
미림 15cc / **설탕** 15cc

【조리법】
① 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물에 데친다.
② 방어는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얼음물에 옮겨 담는다.
물 속에서 비늘과 피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줄기콩은 데쳐서 반으로 자른다.
④ 냄비에 다시, 청주, 무, 방어, 생강 껍질을 넣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고, 고이쿠치 간장, 미림, 설탕을 넣어,
중불에서 15분 정도 더 끓인 후, 마지막에 줄기콩을 넣어 데운다.
⑤ 그릇에 담고, 채 썬 유자 껍질을 얹어 장식한다.

가키프라이(굴 튀김)

【재료】
굴 5개 / **양상추** 1장 / **레몬** 1/8개 / **소금, 후추** 약간
밀가루 적당량 / **달걀 푼 것** 적당량 / **빵가루** 적당량

【조리법】
① 굴은 간 무나 소금을 이용하여 불순물이 빠져나오도록
살살 저어가며 씻어준다.
불순물이 빠져나오면 물로 여러 번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한다.
② 소금, 후추를 뿌리고, 박력분,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힌다.
③ 160℃~170℃ 정도의 기름에 튀긴다.
④ 양상추는 굵게 채썰어 물에 한번 씻는다.
⑤ 그릇에 양상추와 굴을 담고, 레몬을 곁들인다.

배추, 연근, 유부 절임

【재료】
배춧잎 1장 / **연근** 15g / **유부** 1장 / **당근** 5g / **다시** 200cc
우스쿠치 간장 15cc / **미림** 20cc / **소금** 약간 / **시치미** 약간

【조리법】
① 배춧잎, 연근, 유부,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② 냄비에 다시와 조미료를 넣고 끓으면, ①의 재료를 넣는다.
연근이 익으면 불을 끈다.
③ 그릇에 담고, 시치미를 뿌린다.

도코나메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

도자기 마을 도코나메

도코나메 마을 풍경

도코나메 마을 풍경

이낙스 갤러리

이낙스 갤러리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泣きたい私は猫をかぶる)는 2020년 공개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스튜디오 코로리도에서 제작했다. 원래는 2020년 4월, 극장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봉하지 못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2020년 6월 전 세계에 공개되며 인기를 모은 작품이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소녀가 우연히 고양이 가면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일본 중부의 바닷가 마을 도코나메(常滑)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인간일 때 솔직하지 못한 마음을 고양이로 변신해 전달했지만 인간관계, 가족, 진로 등의 중요한 문제까지 고양이가 되어 회피하다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겪게 되는 판타지다. 깔끔하고 섬세한 묘사의 작화가 일본 시골 마을의 풍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의 배경이 된 도코나메는 일본 중부의 중심 도시인 나고야 인근의 바닷가 마을로 추부국제공항 센트레아 바로 옆에 위치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작품 속 소녀의 짝사랑 상대인 소년의 집이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인 것처럼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으로 품질 좋은 자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도코나메가 위치한 지타 반도(知多半島)는 점토가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어, 예로부터 도기가 생산되었으며 세토(瀬戸), 에치젠(越前), 시가라키

토관비탈 길

도자기 공방의 고양이

(信楽), 단바(丹波), 비젠(備前)과 함께 일본의 6대 고가마(日本六古窯)에 속한다. 전통 도자기는 물론 변기 등 위생도기, 타일 제작사인 이낙스(INAX) 갤러리도 있어 현대적인 자기 작품도 구경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마을 풍경 그대로를 작품 속에 담았으며 도자기 산책길이라는 산책 코스가 조성되어 있어 이 길을 걸으면 애니메이션 풍경 속을 걷는 느낌이 든다. 마을 입구에는 일본 행운의 상징인 마네키네코(招き猫)를 도자기로 만들어 장식해 놓은 거리가 있으며,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거대한 도자기 동상인 마네키네코 '도코냥'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고양이 캐릭터와 같은 길 고양이와 고양이 모양 도자기를 마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고양이를 키우는 가게가 많아 작품을 보고 왔다면 주인공이 된 착각에 빠질지도 모른다. 주인공 소년처럼 직접 도예를 해볼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있으며 대왕 고양이를 만난 공원, 주인공이 지나던 토관 비탈길 등이 애니메이션에서 똑같이 묘사되고 있어, 작품을 보고 나서 찾거나 도코나메를 둘러보고 나서 작품을 봐도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네키 네코 스트리트

도코냥

이온몰 오타후쿠

도자기 공방

※도코냥(とこにゃん)

도코나메 야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높이 3.8미터, 폭 6.3미터의 거대한 마네키 네코 동상이다. 도코나메의 점토로 빚었으며 한때 일본 최대 크기의 마네키네코였으나 같은 동네의 쇼핑몰인 이온의 오타후쿠(おたふく) 마네키네코에게 이 타이틀을 빼앗겼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공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도자기 벽

제16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그랑프리 수상작

12월 5일, 제16회 한일 교류 스피치 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본문화원 YouTube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되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방문하지 못한 사람도 대회를 지켜보았다. 이 대회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국의 사회나 문화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국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정을 다지기 위해 열리고 있으며, 이번호에서는 올해 그랑프리를 받은 임혜윤 씨의 수상작을 소개한다. 대회 영상은 일본문화원 YouTube 채널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efhsnkOSlo

일본 전통 다도를 통해 배운 네 가지 마음

작은 문을 통과하면 사회적 위치, 재력, 명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세계가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본의 한 전통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도쿄에서의 교환학생 당시, 이치가와 문화홀에서 전통 다도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재미있어 보여 참가했던 다도는 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본 다도에는 4가지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화합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맑은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다도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각형 문을 통과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다도실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도실에 자리를 잡을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리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열심히 조정합니다. 차를 마실 때도 그렇습니다. 차를 내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옆자리의 사람에게 먼저 차를 권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감사합니다'와 미소가 넘쳐납니다.

저는 일본 전통 다도의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무척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 자체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것, 감사와 양보의 한마디 말의 힘은 굉장하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일본 전통 다도를 통해 나눈 소중한 마음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소중한 마음을 일깨워준 일본 전통 다도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日本伝統茶道で学んだ四つの心

茶室の小さな入り口をくぐると、社会的地位、財力、名声と関係なく全ての人が平等になり、お互いへの配慮が満ちいている世界が広がるとしたら、皆さんは信じますか。 今からこの全てが可能な日本のある伝統文化についてお話ししようと思います。

私は東京での交換留学の時、市川文化ホールで伝統茶室を運営している日本人友達の招待を受けました。単に面白そうだったので参加したのですが、茶道は私に多くのことを悟らせてくれました。

日本の伝統茶道には四つの心が込められ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和合のこころ、恭敬のこころ、清いこころ、不動のこころ。

茶道は一人がやっと入れるほどの小さな四角の入り口を通過することから始まります。姿勢を低くして茶室に入ることで全ての人が平等な人間対人間に向かう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茶室で座る時にも、相手への尊重の心が大事です。

皆が楽に座るために、相手の座る場を見て自身の位置を調節します。お茶を飲む時にもそうです。お茶を出してくれた人に感謝の心を表して、隣の人にお先にお茶を勧めます。こうやってお互いのことを先に考える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笑顔が溢れます。

私は日本伝統茶道の全過程を経験し、たくさんのことを学びました。配慮とは相手を尊重すること、偏見を捨てればその人自体の美しさが見えること、感謝と譲歩の一言の力は素晴らしいこと。人生にはいろいろ大変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私はこういう時ごとに日本伝統茶道を通じて学んだ大切な心を考えようと思います。偏見がない心で世界を眺めようと頑張ろうとします。配慮と尊重のこころで皆と接します。私は、私に大切な心を悟らせた日本伝統茶道を非常に愛しています。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일본어 능력이나 학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어 문자를 모티프로 창작하는 '2020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총 2,391개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 일본어 교육 전문가, 폰트 제작 관계자 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작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중등부 수상자

대상 하나비 / 배윤진 / はなび

우수상 폭신폭신한 꿈 / 문지윤 / ゆめ

우수상 음악 / 김민솔 / おんがく

장려상 봄의 기억(꽃 사진) / 석시은 / はなのしゃしん

장려상 할로윈 / 장예지 / ハロウィーン

장려상 그저 뛰는 토끼와 쥐 / 장시윤 / うさぎ

고등부 수상자

대상 졸려! / 노영은 / ねむい

우수상 미로 / 오혜인 / めいろ

우수상 구두의 고통 / 한은서 / くつ/くつ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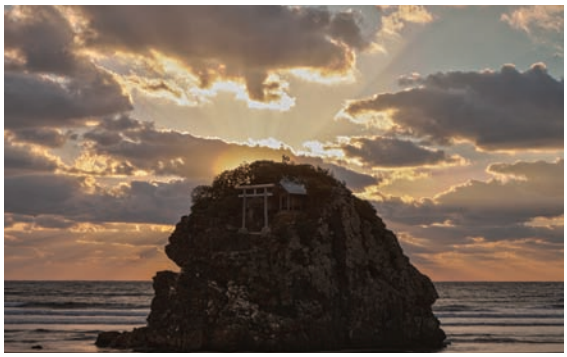
장려상 벌꿀 / 김태인 / はちみつ

장려상 치즈지도 / 정예담 / チーズチズ

장려상 소원! 이루고 말겠다루마! / 탁현아 / だる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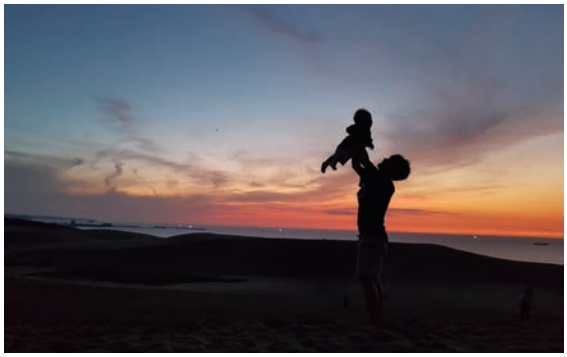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나가사키현상 쓰시마에 오르다 YOON SANGPIL



산인상 신화의 시작 SHIN SEUNG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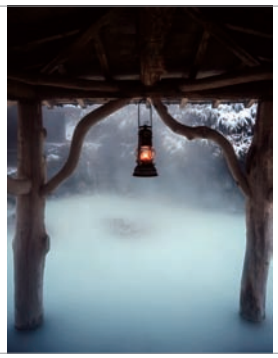
산인상 모자를 쓴 다이센 CHO JUNHYOUNG



돗토리현상 아들과 나 LEE S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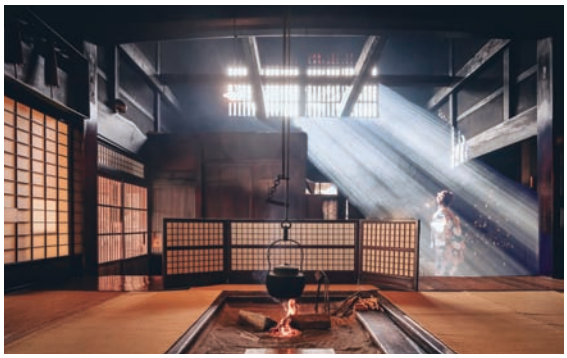
일본정부관광국상 도쿄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KIM SANGHAK

아오모리현상 계절의 경계 EUM JEONGOH



아키타현상 쓰루노유 온천 PARK SHINWOO

EPSON상 나가노에서 KIM DONGSIK



Canon상 빛내림 속 여인 OH KWANGHOON

ANA상 동화나라 KIM JAEEUN

JAL상 편히 잠드소서 KANG JU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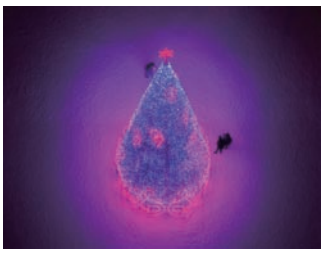
Nikon상 Catch me if you can KIM YOUNGJIN

인터파크상 가족나무 JEON SEOYEONG

인페인터글로벌상 다자와호수 LEE CHULSUNG

CLAIR상 깨달음의 가을 JEONG MINGI

약동 KAWASAKI AKO



새해, 메리 크리스마스 JUNG INYONG

아이누코탄의 연어말리기 HWANG CHEONGHA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SNS수상작 발표

오늘은 어디로? CHOI WOOJAE

신사 붉은 도리이 SON JIYUN

에키벤 마쓰리 KIM HYE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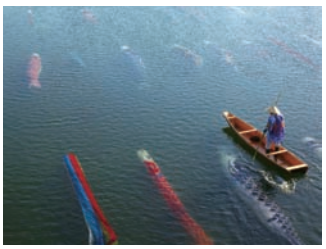
하나된 아름다움 KIM SANGHAN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OSE RUMIKO

부처의 언덕 KIM HYUNJI

웅기가 있는 풍경 NII TAKAO

축제의 밤 MATONO NORIKO



잉어 LIM HYEONGSEOB

내 손 안의 뵤도인 CHOI CHANGYUN

SNS

언덕 위에 빨간 란도셀 KIM SEUNGHYUN

매력적인 가을 YONEDA SACHIKO

빗자루 점프! LEE JAEHUN

기리탄포 YOU JAEWOO

아키타의 나마하게 JEON JEONGHOON

모두가 따뜻하세요 HA INSU

아무도 없는 서점 SHINJAEHO

■ Episode 61-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学)보고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십두지두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마스크가 일상화된 코로나 시대 新화장법.

톡톡톡

짜잔~

보이는 부분만~

오호호호

자연스럽게 생활에 배인 코로나 3종 셋트.

1.체온 체크
2.체크인 QR코드
3.손 소독

이긍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냐~

꾸욱

이 답답한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으니.

무기력 우울...

요즘 부쩍 감정 조절이 안돼~

이유없이 우울한 코로나 블루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왔다 갔다~

이유 없이 화가 나는 코로나 레드

버럭

흐헐~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컴컴한 터널 속을 걷는 기분,
하지만 어떤 터널에도 반드시 출구란 있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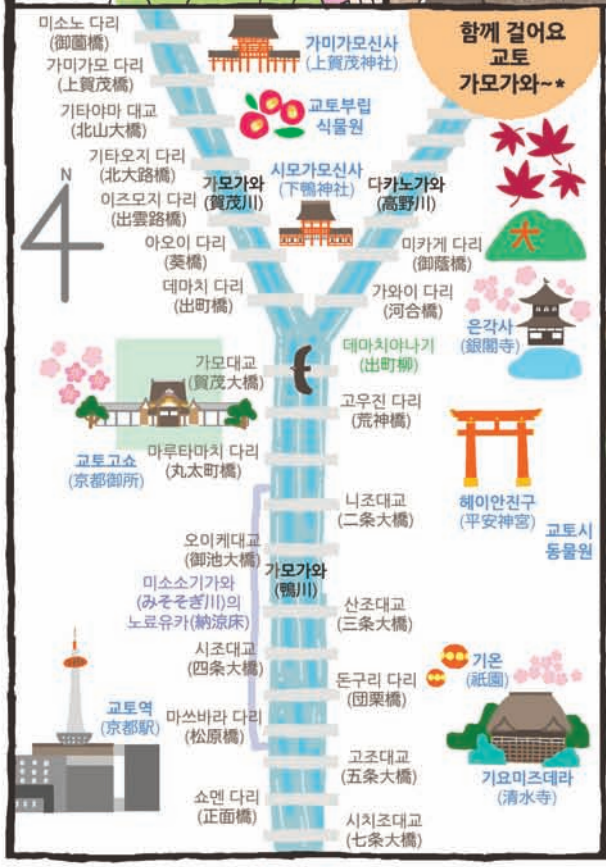
희미하게 보이는 저 희망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코로나 터널도 언젠가 끝이 있을 거야.

터벅터벅

언젠가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터널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잠시나마 세상 시름을
잊게 되는 나만의 명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곳은
나의 제 2의 고향
교토 가모가와(鴨川).

함께 걸어요 교토 가모가와~*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들, 악기 연습을 하는 학생들, 산책하는 사람들, 나무그늘에서 낮잠 자는 사람들, 아장아장 걸음마 연습하는 아기와 젊은 부모,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옹기종기 앉아서 데이트 하는 연인들...

인근에 있는 구쓰키(朽木) 일요 아침시장에서 모미지(낙엽) 튀김우동으로 무르익은 가을을 한 사발 들이킨 후에 걷고 싶은 그 길.

오늘도 나는
이 터널의
끝을 향해 걷는다.

maidoookini@naver.com